서울 동부신문

(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5면)

체계적인 e스포츠 육성 기반 구축 촉구



▲김서윤 의원(풍납1·2동·잠실4·6동)은 글로벌 문화콘텐츠이자 정식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e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송파구를 체계적인 e스포츠 진흥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.

김 의원은 지난 7월 송파청소년센터에서 열린 '2026 송파 e-스포츠 게임대회' 참가자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484명을 기록한 점 등을 언급하며 송파구가 e스포츠 도시로 발전할 최적의 인프라를 갖췄음을 피력했다.

이어 △청소년·가족 중심의 생활형 e스포츠 활성화 △게임 개발·대회 기획·방송 중계 등 청소년 진로 교육 연계 △대형 행사 방문객을 잠실관광특구·석촌호수·방이시장·송리단길로 유인하는 지역상권 연계 등 3대 대안을 제안했다.

김 의원은 "e스포츠가 청소년의 진로 기회, 가족의 문화생활, 송파의 지역경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전용 조례 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"고 당부했다.